

2010년 3월 26일 구원의 심정(100107)-채주명

철야기도 때 받은 주님의 말씀

기도하는 여인이여. 나의 마음 위로 하고자 울부짖는 여인이여.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을 알고 싶소? 내 심정은 당신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당신을 향한 나의 구원의 사랑. 당신을 향한 나의 애절한 외침의 구원이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같이 온 인류 향해 외치는 나의 사랑. 제발이나 그 심정 받았다면 외쳐주오. 나는 영이라 아무리 가서 외치고 애원해도 그들이 나를 몰라주오. 내가 그리도 슬피울며 잡고 애원하는데도 그들은 나를 다시 십자가의 고통으로 올려놓고 차가운 암실에 놓고 있소. 기독교, 천주교 나를 뜨겁게 자들 사랑했던 그 소리들이 식어가요. 내가 이렇게 섭리 만들어 크나큰 사랑의 역사를 전해주려 했는데 그들이 식고 식어 이 역사마저도 반대하고 있소. 더 식어가기 전에 빨리 어서가서 전해주오. 알겠지요? 사랑하오.

주 예수가